

Company Update

Analyst 조경진

RA 고혁진

02) 6915-5464

ckjins@ibks.com

매수 (신규)

목표주가 (신규)	200,000원
현재가 (8/28)	150,600원

KOSPI (8/28)	6,788.88pt
시가총액	9,303십억원
발행주식수	69,051천주
액면가	500원
52주 최고가	165,100원
최저가	96,200원
60일 일평균거래대금	42십억원
외국인 지분율	26.3%
배당수익률 (2026F)	0.9%

주주구성	
아모레퍼시픽그룹 외 17	50.03%
국민연금공단	8.42%
추가상승	1M 6M 12M
상대기준	12% -9% -41%
절대기준	27% -1% 26%

	현재	직전	변동
투자의견	매수	-	-
목표주가	200,000	-	-
EPS(26)	5,523	-	-
EPS(27)	6,451	-	-

아모레퍼시픽 추가추이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아모레퍼시픽 (090430)

남은 건 확장뿐

럭셔리부터 더마까지 국내 최대 브랜드 포트폴리오 보유

동사는 설화수, 라네즈, 이니스프리, 에스트라, 코스알엑스 등 30여 개의 다양한 스킨케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러, 라보에이치, 미장센 등 헤어케어 브랜드 또한 핵심 제품군을 중심으로 견고한 매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는 면세와 로드샵 중심의 오프라인 구조에서 벗어나 온라인과 MBS(Multi Brand Shop)채널이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해외는 기존 오프라인 유통망 중심 전략에서 이커머스 플랫폼 침투를 확대하며 판매 채널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서구권 매출 견인하는 핵심 브랜드 코스알엑스

코스알엑스는 2018년 미국 아마존 진출을 시작으로 유럽으로 판매 지역을 확장해왔다. 매출은 2024년 5,8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하며 외형 성장을 이어갔으나, 2025년에는 4,563억 원으로 22.6% 감소했다. 유통 구조 개편과 가격 정책 정비를 동반한 체질 개선 과정에서 일시적인 매출 감소가 발생했었다. 4Q25부터 리뉴얼 효과가 확인되기 시작하며 매출 1,523억 원, 영업이익 3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4%, 25.7% 증가, 2026년 2분기까지 두 자릿수 성장세가 이어졌다. 단일 제품 의존도가 높았던 과거와 달리 RX 라인 등 신규 라인으로 SKU가 다변화되며 턴어라운드에 성공, 영업이익률 20%대의 고마진 브랜드로 전사 수익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2026년 매출액은 5,895억 원(+29.2% YoY)으로 전망한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00,00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목표주가는 12MF EPS 7,309원에 Target PER 27.5배(글로벌 화장품 피어 12MF 평균 PER)를 적용해 산출했다. 동사가 피어 대비 할인 거래됐던 이유는 중국 익스포저와 이익 변동성이었는데 중화권 비중이 해외 매출의 10.6%까지 축소됐고, 구조조정 완료로 손익 하방도 제한적이다. 서구권 매출의 유의미한 증가와 더마 브랜드의 성장이 고무적이다. 영업이익률이 10%대에 안착하며 할인 근거가 약화되었다고 판단한다.

(단위:십억원,배)	2024	2025	2026F	2027F	2028F
매출액	3,885	4,253	4,729	5,260	5,820
영업이익	220	336	491	575	725
세전이익	621	344	504	589	741
지배주주순이익	593	236	381	445	524
EPS(원)	8,591	3,413	5,523	6,451	7,585
증가율(%)	229.4	-60.3	61.8	16.8	17.6
영업이익률(%)	5.7	7.9	10.4	10.9	12.5
순이익률(%)	15.5	5.8	8.3	8.7	9.9
ROE(%)	11.7	4.4	6.8	7.5	8.3
PER	12.2	35.0	25.8	22.1	18.8
PBR	1.4	1.5	1.7	1.6	1.5
EV/EBITDA	13.4	11.9	11.4	10.1	8.1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밸류에이션

투자의견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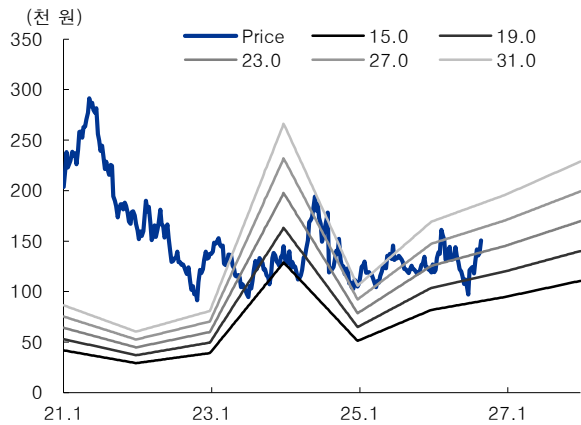
목표주가 200,000원

표 1. 목표주가 산출 내역

구분	내용	비고
12MF 지배순이익(억 원)	4,275	12개월 선행 지배주주순이익
보통주 발행주식수(천주)	58,493	
12MF 지배주주 EPS(원)	7,309	
Target PER(배)	27.5	글로벌 화장품 피어 12MF 평균 PER
적정주가(원)	201,363	
목표주가(원)	200,000	
현재주가(원)	150,600	2026년 8월 28일 종가
상승여력(%)	32.8	현재주가 기준 업사이드 여력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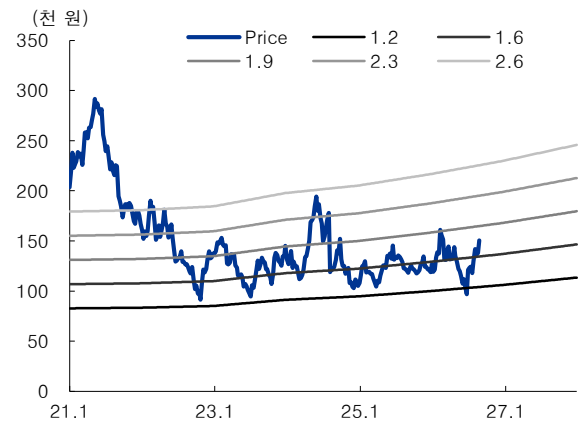
자료: IBK투자증권

그림 1. 아모레퍼시픽 12MF P/E 밴드차트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그림 2. 아모레퍼시픽 12MF P/B 밴드차트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1)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채널 확장

이미 오프라인에서 쌓인
브랜드 신뢰도

동사의 미주 및 EMEA(유럽+중동+아프리카) 확장은 세포라와의 파트너십을 축으로 전개되어 왔다. 세포라는 글로벌 프리미엄 뷰티 리테일러로서 입점 심사가 엄격해, 진입 자체가 브랜드에게는 초기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로였다.

오프라인 확장
제한 요소

한편, 오프라인 리테일러 입점에는 제약이 따른다. 첫째, 매장 수와 진열 면적과 같은 물리적 한계가 있다. 둘째, 입점 협상과 VMD 구축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투자 회수 주기가 길다. 셋째, 리테일러의 카테고리 전략에 좌우되어 신규 브랜드의 추가 입점이 제한적이다.

온라인에서 더욱 유리한
멀티 브랜드 전개

멀티 브랜드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다수 브랜드를 동시에 전개할 때 실현되는데, 입점 승인이 필요한 플랫폼을 제외하면 온라인은 매장 면적의 제약 없이 브랜드를 전개할 수 있어, 멀티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동사에게 레버리지가 클 것으로 판단한다.

최근 미주 지역에서의 K뷰티 수요는 아마존과 틱톡샵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에 동사는 세포라를 진입 경로로 활용해 브랜드 신뢰도를 확보한 뒤, 아마존으로 접점을 확대하는 단계적 전략을 취했었다.

온라인으로 판매 성과
이어지는 중

6월(2026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진행)에 진행된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의 온라인 판매 성과가 확인됐다. 라네즈, 코스알엑스, 일리운, 미장센이 뷰티·퍼스널케어 카테고리 상위권에 다수 진입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 코스알엑스는 독일·영국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 1위를 기록했다.

프라임데이 Top 100
진입: 3개 → 8개 제품

표 2. 2026년 6월 아마존 프라임데이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순위

시장	브랜드	제품	카테고리 순위
미국	라네즈	립 글로이 밤	립밤 1위
미국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	립밤 2위
미국	미장센	퍼펙트 세럼 헤어 오일	헤어 스타일링 오일 1위
미국	일리운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	페이셜 모이스처라이저 5위
미국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	페이셜 모이스처라이저 10위
미국	코스알엑스	스네일 뮤신 세럼	-
유럽	코스알엑스	울트라 라이트 인비저블 선크림	선크림 1위

자료: 아모레퍼시픽, IBK투자증권

직전 행사인 3월 아마존 빅 스프링 세일 행사(2026년 3월 25일부터 7일간 진행)에서는 코스알엑스 3개 제품만 Top 100에 진입했다. 3개월 만에 진입 제품 수가 3개에서 8개로, 브랜드 수가 1개에서 4개로 늘었다. 라네즈가 Top 5에 진입했고, 더마 카테고리 해당 브랜드들(코스알엑스, 에스트라, 일리윤)이 동시에 순위권에 자리했다.

이 성과는 실적으로 연결되며 2Q26 미주 매출은 2,104억 원(+56.5% YoY), EMEA 매출은 720억 원(+63.3% YoY)을 기록했다. 서구권 합산 2,8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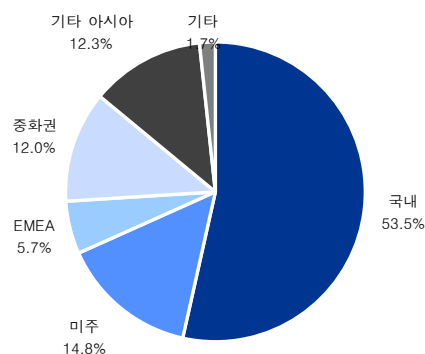
표 3 2026년 3월 아마존 빅 스프링 세일 주요 브랜드별 성과 요약

브랜드	전년 대비 매출 신장률	주요 성과 및 순위
라보에이치	8,149%	헤어 리그로스 토닉 부문 3위
일리윤	384%	페이셜 모이스처라이저 부문 3위
롱테이크	347%	헤어 프래그런스 부문 7위
미장센	237%	헤어 스타일링 오일 부문 1위
아윤채	208%	본딩 크림 등 전문 헤어케어 매출 급증
에스쁘아	191%	비벨벳 쿠션 등 색조 메이크업 호조
오설록	102%	프루트 티 부문 1위
에뛰드	104%	립 스테인 부문 6위

자료: 아모레퍼시픽,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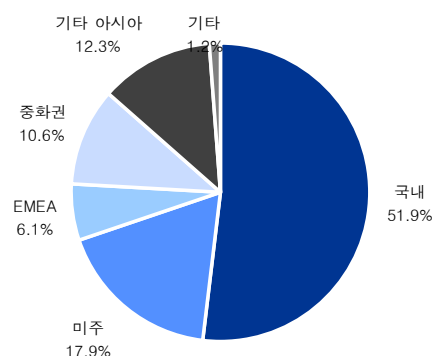
미주와 유럽지역 판매 호조에 따라 지역 믹스도 이에 맞춰 재편되고 있다. 중화권 비중은 2024년 13.1%, 2025년 12.0%에서 2Q26 10.6% 수준까지 축소된 반면, 미주와 EMEA를 합산한 서구권 비중은 2025년 20.5%에서 2026년 2분기 24.0%로 확대됐다. 2분기 미주 매출은 2,104억 원(+56.5% YoY), EMEA는 720억 원(+63.3% YoY)을 기록하며 성장을 주도했고, 중화권은 1,245억 원으로(-6.2% YoY) 감소했다.

그림 3. 아모레퍼시픽 2025년 국가별 매출 비중



자료: 아모레퍼시픽, IBK투자증권

그림 4. 아모레퍼시픽 2026년 2분기 국가별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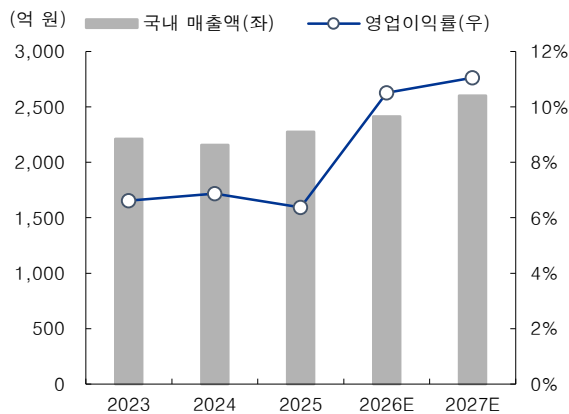


자료: 아모레퍼시픽, IBK투자증권

2026F 서구권 매출 1조 원 돌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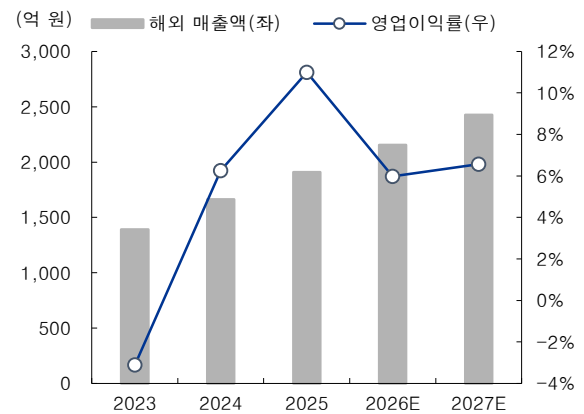
3Q26에도 서구권에서 고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확보한 랭킹과 리뷰는 고객 유입으로 연결되고, 랭킹 상승은 세포라와 알타 등 오프라인 리테일러와의 협상력을 높인다. 2026년 서구권 매출은 1조 1,102(+26.4% YoY)억 원으로 전망한다. 연 매출 1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27년에는 해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한다.

그림 5. 아모레퍼시픽의 연간 국내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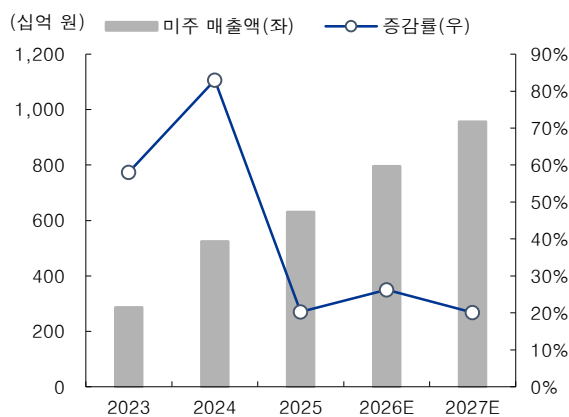
자료: 아모레퍼시픽, IBK투자증권

그림 6. 아모레퍼시픽의 연간 해외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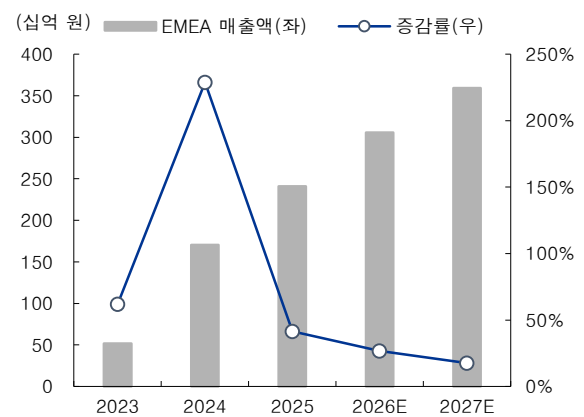
자료: 아모레퍼시픽, IBK투자증권

그림 7. 아모레퍼시픽의 연간 미주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아모레퍼시픽, IBK투자증권

그림 8. 아모레퍼시픽의 연간 EMEA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아모레퍼시픽, IBK투자증권

2) 리브랜딩 성공한 코스알엑스(COSRX)의 턴어라운드

더마 카테고리의 판매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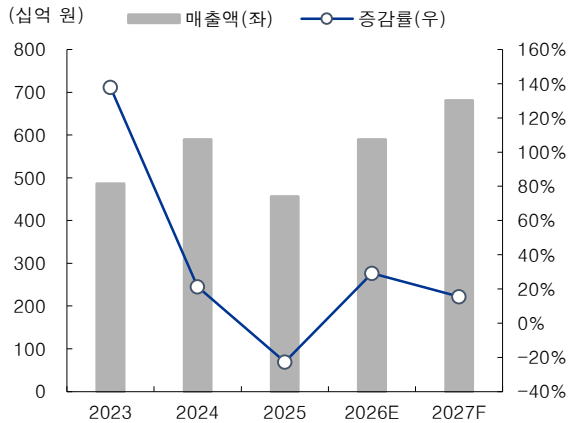
동사가 운영하는 30여개 브랜드 중 기초 카테고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그 중에서도 더마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코스알엑스, 일리윤, 에스트라 등 더마 브랜드의 성장세에 주목해야한다는 판단이다.

핵심 육성 브랜드 중 하나인 코스알엑스는 동사 M&A 역사상 최대 규모인 총 9,351억 원을 투입한 거래로 2024년 5월부터 연결 편입되었다. 해외 매출 비중이 90%에 달하는 수출 중심의 브랜드다.

코스알엑스는 2025년 매출 4,5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역성장했는데 아세안 지역 가격 정상화 정책과 스네일 뮤신 에센스 판매 감소가 원인이었다. 제품 호흡 주기가 짧아진 환경에서 특정 제품에 집중된 매출 감소 영향이 주요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코스알엑스는 4Q25 RX 펩타이드 아이케어 패치 등 신규 SKU를 확보하며 단일 SKU 의존도를 낮췄고, 2Q26 매출 +57% 성장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2026년 매출액은 5,895억 원(+29.2% YoY), 영업이익은 148억 원(+30% YoY), 영업이익률 25.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 9. 코스알엑스의 연간 실적추이 및 전망



자료: 아모레퍼시픽, IBK투자증권

그림 10. 실리콘투와 파트너십 체결 후 코스알엑스의 순위 상승

No.	2022	2023	2024	2025	2026E
1	COSRX	BEAUTY JOSEON	BEAUTY JOSEON	BEAUTY JOSEON	medicube
2	SOME BY MI	COSRX	ANUA	medicube	BEAUTY JOSEON
3	Pyunkang Yul	Pyunkang Yul	COSRX	ANUA	Dr. Althea
4	heimish	heimish	REUND LAB	Dr. Althea	Biodance
5	heimish	SOME BY MI	TOCOBO	Biodance	ANUA
6	ANUA	ANUA	TIRTIR	SKINTOO4	COSRX
7	ETUDE	rom&nd	SKINTOO4	REUND LAB	REUND LAB
8	rom&nd	TOCOBO	Pyunkang Yul	TOCOBO	SKINTOO4
9	innisfree	REUND LAB	heimish	COSRX	celimax
10	MIGUHARA	SKINTOO4	numbuz:n	d'Alba	TOCOBO

자료: 실리콘투, IBK투자증권

럭셔리에서
매스 브랜드까지
전 가격대 커버

동사의 강점은 럭셔리부터 매스까지 전체 카테고리, 다양한 가격대를 커버하는 브랜드 스펙트럼이다.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프리미엄에서 매스티지 영역까지 아우를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시장의 80~90% 수준에 해당한다.

2025년 기준 국내 브랜드 비중은 설화수 29%, 헤라 15%, 에스트라 7%, 미장센 6%, 라네즈 6%, 아이오페 6%, 일리운 4%였다. 1년 사이 설화수 비중이 1%p 하락한 반면 에스트라가 3%p 상승했다. 브랜드 구성의 무게중심이 럭셔리에서 더마, 매스로 이동하고 있다.

표 4. 카테고리별 주력 브랜드

카테고리	주력 브랜드	대표 제품
럭셔리	설화수, 헤라, AP뷰티	윤조에센스, 블랙쿠션
프리미엄	라네즈, 에스트라, 마몽드, 아이오페	워터뱅크크림, 아토티어365크림
매스	이니스프리, 한울, 미장센, 일리운, 러	그린티 라인, 세라마이드 아토크림
인디브랜드	코스알엑스	스네일 뮤신 에센스, RX 더마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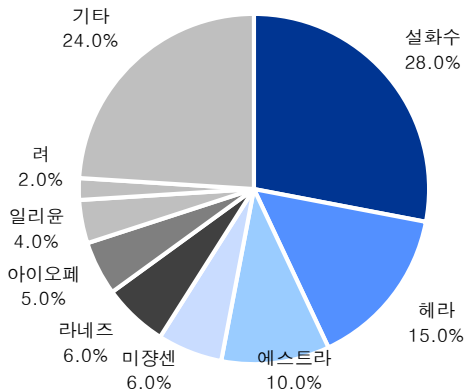
자료: 아모레퍼시픽, IBK투자증권

표 5. 2Q26 주요 브랜드 성과

브랜드	성과
에스트라	매출 +100% 이상(전사), 국내 +57.6%, 북미 세 자릿수 성장
코스알엑스	매출 1,510억 원(+57%), 영업이익 370억 원(+51%), OPM 25% 수준
일리운	+50% 이상, 국내 +47.1%, 아마존 프라임데이 23위
미장센	국내 +10.3%, 아마존 프라임데이 베스트셀러 상위권
라네즈	국내 +10.3%, 프라임데이 4위 · 11위
이니스프리	서구권 고성장, 세포라 선케어 · 트리트먼트 순위 상승

자료: 아모레퍼시픽, IBK투자증권

그림 11. 국내 주요 브랜드 매출 비중(2Q26)



자료: 아모레퍼시픽, IBK투자증권

3) 비용 효율화와 브랜드 믹스 개선

OPM 2023년 2.9% →
2026F 10.2%

2026년 연결 영업이익률은 10.3%로 전년 대비 2.4%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2027년 10.9%로 추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인건비 효율화, 중화권 구조조정 완료 영향, 믹스 개선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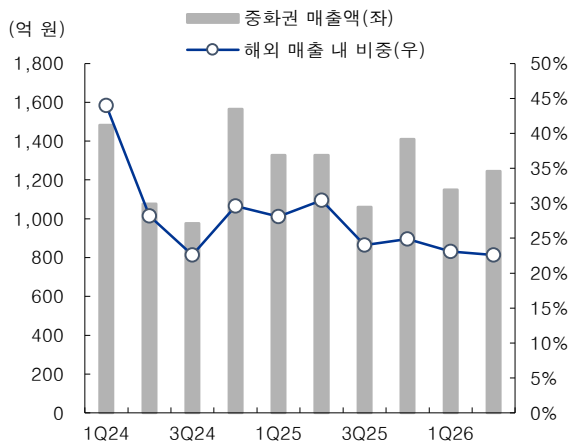
1) 인건비 효율화: 4Q25 536억 원 규모의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오프라인 사업 및 지원 조직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인력 재편이 병행되었다. 2026년부터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며, 절감 비용은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마케팅비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중화권 구조조정 완료: 중국 사업은 2023~2024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쳤다. 이커머스 거래구조를 직매입에서 컨사인먼트로 변경하는 과정의 재고 환입 비용을 2024년에 반영했고, 수익성이 낮았던 이니스프리의 오프라인 매장 철수, 저수익 브랜드 마케팅, 프로모션 비용을 축소했다. 그 결과 2024년 중화권 매출은 전년 대비 26.7% 감소하고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나, 2025년 1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Q26 중화권 매출은 1,245억 원(-6.2% YoY)으로 역성장했으나 흑자 기조는 유지했다. 역성장 폭은 전 분기(-13.5%) 대비 축소됐으며 매출 감소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고정비를 낮춘 상태에서 설화수 중심으로 운영하는 기조로 중국 시장 부진이 지속되더라도 하방 리스크는 통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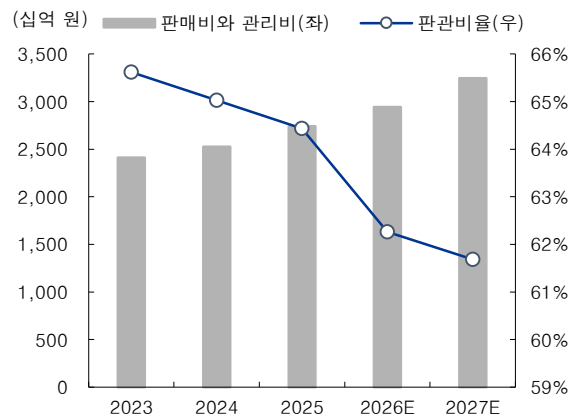
3) 믹스 개선: 브랜드와 판매 국가에서 모두 믹스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연간 영업이익률 25% 수준을 기록하는 코스알엑스가 턴어라운드 성공하며 전사 수익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코스알엑스는 B2B 비중이 높아 고정비 부담이 적고, 온라인 중심 판매로 유통 수수료가 낮다. 2025년 매출 비중 10.7%에서 2026년 12.6%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림 12. 아모레퍼시픽의 중화권 매출 추이 및 비중



자료: 아모레퍼시픽, IBK투자증권

그림 13. 아모레퍼시픽의 판관비 및 판관비율 추이



자료: 아모레퍼시픽, IBK투자증권

2Q26 실적 리뷰

영업이익 컨센서스
+19.2% 상회

2Q26 연결 매출액은 1조 1,759억 원(+17.0% YoY, +3.5% QoQ), 영업이익은 1,173억 원(+59.3% YoY, -7.4% QoQ)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10.0%다. 컨센서스 매출액 1조 917억 원, 영업이익 984억 원 대비 매출은 +7.7%, 영업이익은 +19.2%를 상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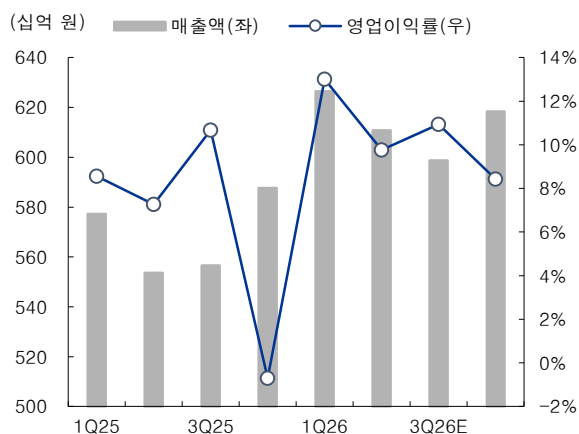
2분기 일회성 요인으로 미국 관세 환급금 190억 원이 유입되었고, 국내외 성과급 약 150억 원이 지급되었다. 이에 따른 일회성 이익 개선 효과는 약 40억 원으로, 영업이익 증가분 436억 원의 9% 수준이다. 일회성 요인을 모두 제거하면 영업이익은 약 1,133억 원, 영업이익률 9.6%로 컨센서스를 15% 상회하며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국내 매출액은 6,108억 원(+10.3% YoY), 영업이익 596억 원(+48.3% YoY, OPM 9.8%)이다. 면세와 크로스보더가 +16%로 순수 국내(+9% YoY)를 앞섰고, 면세 비중은 국내 매출의 18%를 차지한다.

해외 매출액은 5,516억 원(+27.6% YoY), 영업이익 718억 원(+99% YoY, OPM 13.0%)으로 국내 OPM을 상회했다. 미주 2,104억 원(+56.5% YoY), EMEA 720억 원(+63.3% YoY), 기타 아시아 1,447억 원(+19.3% YoY)이 성장을 견인했으며, 중화권은 1,245억 원(-6.2% YoY)으로 설화수 백화점 채널 효율화 영향에 역성장했으나 흑자를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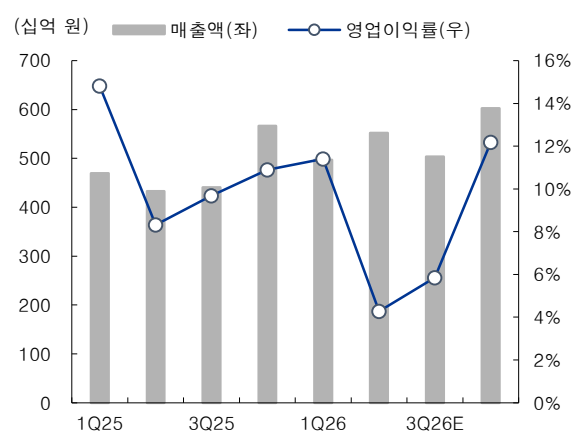
더마 카테고리 중심의 성장이 고무적이다. 미주에서 에스트라가 세포라 멕시코 신규 입점과 함께 세 자릿수 성장했고, 일리운은 아마존 프라임데이 판매가 세 자릿수 증가하며 뷰티 퍼스널케어 상위권에 진입했다. 코스알엑스는 신규 펩타이드 라인 출시와 아마존·틱톡샵 호조로 성장을 지속했다. EMEA에서는 코스알엑스의 선케어 제품이 독일 뷰티와 영국 선케어카테고리 아마존 1위를 기록하며 세 자릿수 성장, 일본에서는 에스트라가 큐텐 메가와리 기네스 매출을 기록하며 세 자릿수 성장했다.

그림 14. 아모레퍼시픽의 분기별 국내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아모레퍼시픽, IBK투자증권

그림 15. 아모레퍼시픽의 분기별 해외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아모레퍼시픽, IBK투자증권

표 6.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십억 원)

구분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3Q26E	4Q26E	2025	2026E	2027E
매출액	1,067.5	1,005.0	1,016.9	1,163.4	1,135.8	1,175.9	1,140.2	1,277.2	4,252.8	4,729.0	5,260.0
% YoY	17.1	11.1	4.1	6.6	6.4	17.0	12.1	9.8	9.5	11.2	11.2
국내	577.3	553.6	556.6	587.7	626.4	610.8	598.8	618.3	2,275.2	2,454.2	2,680.7
% YoY	2.4	8.1	4.1	7.4	8.5	10.3	7.6	5.2	5.5	7.9	9.2
Sales of %	40.9	14.9	4.0	5.7	3.9	25.2	17.6	14.5	14.4	15.0	13.4
해외	490.2	451.4	460.3	575.7	509.4	565.1	541.4	658.9	1,977.6	2,274.8	2,579.3
% YoY	40.9	14.9	4.0	5.7	3.9	25.2	17.6	14.5	14.4	15.0	13.4
Sales of %	45.9	44.9	45.3	49.5	44.8	48.1	47.5	51.6	46.5	48.1	49.0
영업이익	117.7	73.7	91.9	52.5	126.7	117.3	123.9	122.8	335.8	490.7	574.6
% YoY	62.0	1673.4	41.0	-33.0	7.6	59.3	34.8	133.7	52.3	46.1	17.1
영업이익률(%)	11.0	7.3	9.0	4.5	11.2	10.0	10.9	9.6	7.9	10.4	10.9
국내	49.4	40.2	59.4	-4.1	81.5	59.6	65.5	52.1	144.9	258.7	297.7
% YoY	0.6	164.5	23.8	적자전환	65.0	48.3	10.3	흑자전환	-2.3	78.5	15.1
국내 영업이익률(%)	8.6	7.3	10.7	-0.7	13.0	9.8	10.9	8.4	6.4	10.5	11.1
해외	69.6	36.0	42.7	61.7	56.7	71.8	60.0	73.4	210.0	261.9	313.6
% YoY	120.3	605.9	72.9	43.8	-18.5	99.4	40.5	19.0	101.3	24.7	19.7
해외 영업이익률(%)	14.2	8.0	9.3	10.7	11.1	12.7	11.1	11.1	10.6	11.5	12.2
지배주주순이익	110.8	35.8	66.0	23.1	108.5	88.3	90.8	93.7	235.7	381.4	445.5
% YoY	41.0	-93.3	75.4	-142.4	-2.0	146.9	37.5	305.6	-60.3	61.8	16.8
순이익률(%)	10.4	3.6	6.5	2.0	9.6	7.5	8.0	7.3	5.5	8.1	8.5

자료: 아모레퍼시픽, IBK투자증권

아모레퍼시픽 (090430)

포괄손익계산서

(십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매출액	3,885	4,253	4,729	5,260	5,820
증가율(%)	5.7	9.5	11.2	11.2	10.6
매출원가	1,138	1,177	1,294	1,441	1,599
매출총이익	2,747	3,076	3,435	3,819	4,221
매출총이익률 (%)	70.7	72.3	72.6	72.6	72.5
판매비	2,526	2,740	2,944	3,245	3,495
판매비율(%)	65.0	64.4	62.3	61.7	60.1
영업이익	220	336	491	575	725
증가율(%)	103.8	52.3	46.1	17.1	26.3
영업이익률(%)	5.7	7.9	10.4	10.9	12.5
순금융손익	81	2	-9	14	15
이자손익	-16	-9	0	0	0
기타	97	11	-9	14	15
기타영업외손익	302	7	22	0	0
중속/관계기업손익	16	-1	0	1	1
세전이익	621	344	504	589	741
법인세	19	97	111	130	164
법인세율	3.1	28.2	22.0	22.1	22.1
계속사업이익	602	247	393	459	577
중단사업손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602	247	393	459	577
증가율(%)	246.0	-58.9	58.9	16.7	25.8
당기순이익률 (%)	15.5	5.8	8.3	8.7	9.9
지배주주당기순이익	593	236	381	445	524
기타포괄이익	-1	22	17	0	0
총포괄이익	600	269	410	459	577
EBITDA	478	604	728	773	903
증가율(%)	32.7	26.4	20.5	6.2	16.8
EBITDA마진율(%)	12.3	14.2	15.4	14.7	15.5

투자지표

(12월 결산)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주당지표(원)					
EPS	8,591	3,413	5,523	6,451	7,585
BPS	76,066	78,917	83,382	88,594	94,939
DPS	1,125	1,240	1,240	1,240	1,240
밸류에이션(배)					
PER	12.2	35.0	25.8	22.1	18.8
PBR	1.4	1.5	1.7	1.6	1.5
EV/EBITDA	13.4	11.9	11.4	10.1	8.1
성장성지표(%)					
매출증가율	5.7	9.5	11.2	11.2	10.6
EPS증가율	229.4	-60.3	61.8	16.8	17.6
수익성지표(%)					
배당수익률	1.1	1.0	0.9	0.9	0.9
ROE	11.7	4.4	6.8	7.5	8.3
ROA	9.5	3.6	5.5	6.0	7.0
ROIC	16.5	6.0	9.9	11.7	15.2
안정성지표(%)					
부채비율(%)	27.4	26.5	27.1	28.4	29.1
순차입금 비율(%)	-2.2	-5.4	-10.1	-16.7	-24.3
이자보상배율(배)	7.8	15.0	0.0	0.0	0.0
활동성지표(배)					
매출채권회전율	11.4	11.4	12.3	12.0	12.0
재고자산회전율	8.7	8.7	9.1	9.0	8.9
총자산회전율	0.6	0.6	0.7	0.7	0.7

*주당지표 및 밸류에이션은 지배주주순이익 및 지배주주지분 기준

재무상태표

(십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유동자산	1,735	2,004	2,526	3,128	3,881
현금및현금성자산	452	525	834	1,299	1,917
유가증권	47	74	57	64	71
매출채권	386	358	412	462	511
재고자산	498	480	554	621	687
비유동자산	5,049	4,957	4,869	4,824	4,745
유형자산	2,296	2,225	2,149	2,011	1,893
무형자산	1,774	1,723	1,710	1,710	1,710
투자자산	74	66	129	133	136
자산총계	6,784	6,961	7,395	7,952	8,626
유동부채	1,096	1,121	1,209	1,354	1,499
매입채무및기타채무	96	109	108	121	134
단기차입금	306	256	251	281	311
유동성장기부채	0	0	0	0	0
비유동부채	362	337	368	406	444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0	0	0	0
부채총계	1,457	1,458	1,577	1,761	1,943
지배주주지분	5,252	5,449	5,758	6,117	6,556
자본금	35	35	35	35	35
자본잉여금	623	633	633	633	633
자본조정등	-18	-11	-17	-17	-17
기타포괄이익누계액	12	17	42	42	42
이익잉여금	4,601	4,775	5,065	5,424	5,863
비지배주주지분	74	54	61	74	127
자본총계	5,326	5,503	5,818	6,191	6,683
비이자부채	1078	1156	1276	1430	1582
총차입금	379	302	301	331	361
순차입금	-119	-297	-590	-1,032	-1,627

현금흐름표

(십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영업활동 현금흐름	335	584	566	553	651
당기순이익	602	247	393	459	577
비현금성 비용 및 수익	-56	421	347	195	173
유형자산감가상각비	257	268	237	198	178
무형자산상각비	0	0	0	0	0
운전자본변동	-164	13	-127	-101	-99
매출채권등의 감소	-53	28	-52	-50	-49
재고자산의 감소	-42	-14	-90	-67	-66
매입채무등의 증가	-27	14	-2	13	13
기타 영업현금흐름	-47	-97	-47	0	0
투자활동 현금흐름	-312	-295	-193	-174	-118
유형자산의 증가(CAPEX)	-81	-65	-73	-60	-60
유형자산의 감소	1	1	9	0	0
무형자산의 감소(증가)	-21	1	-13	0	0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3	-1	-35	-54	1
기타	-208	-231	-81	-60	-59
재무활동 현금흐름	-99	-222	-87	86	85
차입금의 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기타	-99	-222	-87	86	85
기타 및 조정	21	6	23	1	0
현금의 증가	-55	73	309	466	618
기초현금	506	452	525	834	1,299
기말현금	452	525	834	1,299	1,917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명	담당자	담당자(배우자) 보유여부			1%이상 보유여부	유가증권 발행관련	계열사 관계여부	공개매수 사무취급	IPO	회사채 지급보증	중대한 이해관계	M&A 관련
		수량	취득가	취득일								

해당 사항 없음

투자 의견 안내 (투자기간 12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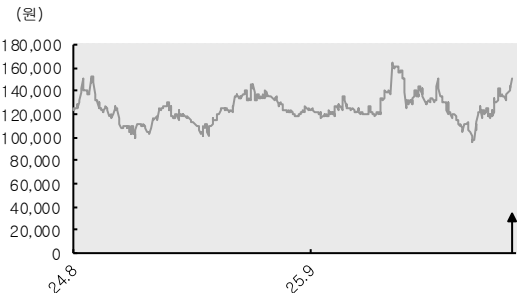
종목 투자 의견 (절대수익률 기준)			
매수 15% 이상	Trading Buy (중립) 0%~15%	중립 -15%~0%	축소 -15% 이상 하락
업종 투자 의견 (상대수익률 기준)			
비중확대 +10% ~	중립 -10% ~ +10%	비중축소 ~ -10%	

투자등급 통계 (2025.07.01~2026.06.30)

투자등급 구분	건수	비율(%)
매수	143	95.3
Trading Buy (중립)	6	4
중립	1	0.7
매도	0	0

최근 2년간 주가 그래프 및 목표주가(대상 시점 1년) 변동 추이

(▲) 매수, (■) Trading Buy (중립), (●) 중립, (◆) 축소, (■) Not Rated / 담당자 변경

아모레퍼시픽	추천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원)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026.08.28	매수	200,000		